



<10> 해남 두륜산

▲ 두륜산 도립공원 등산안내도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의 11번째 산행지인 해남 두륜산 도립공원을 찾은 원정대원들이 지난 22일 대흥사 입구에 넓게 펼쳐진 동백 군락지를 걷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동백꽃 터널 지나자 기암괴석... 어느덧 다도해가 한눈에

봄이 오는 길목에, 남도 산행은 봄 꽃 구경이 제 맛이다. 하지만,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 탓인지 아직 꽃 구경은 이른 듯하다.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의 11번째 산행지는 해남 두륜산 도립공원이다.

한반도의 가장 남쪽 끝에 위치한 두륜산은 가련봉(703m)을 비롯한 두륜봉(630m), 고계봉(638m), 노승봉(685m), 도솔봉(672m), 연화봉(613m), 향로봉(469m), 혈말봉(379m) 등 8개의 높고 낮은 능선을 이루고 있다.

각각의 봉우리에서는 서해안과 남해안 곳곳의 다도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산이기도 하다.

22일 펼쳐진 밀레 한국명산 11번째 두륜산 산행 참석자는 총 1242명. 광주 신세계백화점 밀레 매장이 이번 산행부터 참석하면서 총 매장 수 17개에 원정대의 숫자는 1200명을 넘어섰다. 300명으로 시작된 원정대가 11개월 만에 4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날 코스는 대흥사 주차장에서 시작해 대흥사-북미륜암-천년수-만일재-두륜봉-구름다리-지눌암-표충사를 거쳐 다시 대흥사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4시간 가량의 산행이었다.

봄이긴 하지만, 여전히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탓에 참석자들의 옷 치림은 여전히 두툼한 겨울 옷이 대부분이었다. 노란색·초록색 등 원만한 봄 등산복으로 갈아입은 참석자들도 눈에 띄었다.

출발지인 대흥사 주차장에서 대흥사 입구에 이르는 길 양편으로 자리한 동백 군락지의 동백 꽃들이 봉우리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이며 등반객들을 반겼다. 아직은 만개하지 않았지만, 1~2주 후면 봉우리들이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동백 군락지를 지나면 대흥사 입구에서부터는 낙락장송들이 줄지어 하늘을 향해 쪽쪽 뻗어 있었다. 대흥사가 연륜 있는 오랜 고찰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했다.

대흥사 경내에 들어서면 대웅전 뒤쪽으로 가지런히 서 있는 봉우리와 능선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본격적인 산행은 대흥사를 지나면서 시작됐다. 1km 정도는 경사도가 완만해 마치 트레킹하듯 쉽게 걸을 수 있었다.

봄 기운 탓에 두륜산의 푸른 녹음이 점점 짙어가는 것 같았다. 긴 호흡을 하며 푸른 녹음을 감상할 즈음 '와'하고 선두 쪽에서 탄성이 들렸다. 녹음 사이사이로 분홍색의 진

달래가 수줍은 듯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을 본 원정대들이 탄성을 내지른 것이다. 진달래 꽃 일부는 봉우리를 더 원정대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일부 봉우리들은 이제 막 순이 돌아나 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꽃 구경도 잠시, 1km 가량 올랐을 때 원정대들의 산행 속도가 급격히 줄었다. 산행 초반부터 두툼한 옷을 벗고 봄 옷으로 갈아입는 원정대들 때문에 선두가 정체됐기 때문이다.

계절이 바뀌는 간절기 산행인데다 최근 일교차가 큰 만큼 원정대들의 준비도 만만치 않았다. 겨울 옷과 봄 옷 모두를 챙겨온 원정대들은 산 중턱쯤에서 봄 옷으로 갈아입은 뒤 산행 속도를 높였다.

만일재 인근에서부터는 60도에 이르는 경사도와 기암괴석으로 인해 원정대의 속도가 줄었다. 두륜봉과 가련봉에서 뻗어나와 산 아래로 이어지는 바위 계곡 때문에 원정대들이 바위틈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녀야만 했다.

만일재에서 두륜봉 정상까지는 한숨에 내달려 올랐다. 해남의 드넓은 간척지 뒤로 완도 앞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두륜봉 정상의 찬바람은 아직도 거셴다. 원정대들은 매장한 점심을 했다.

원정대 김순임(여·54)씨는 "역시 산 정상에서 먹는 점심은 꿀맛이며,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자연에서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더 없이 좋제"라며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가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단히 점심을 마친 원정대들은 멀리서 밀려오는 먹구름에 하산길을 재촉했다.

하지만, 두륜봉에서 구름다리를 거쳐 진불암을 내려오는 길은 경사도가 90도에 가까워 어려운 산행이 됐다. 원정대들은 곳곳에 설치된 밧줄에 의존해 하산을 서둘렀다. 원정대들의 숫자가 많은 탓에 일부 구간은 정체가 되긴 했지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동료애를 발휘했다.

진불암에서 표충사로 내려오는 길은 빼곡한 숲길을 걷는 기분이다. 며칠 전 비가 온 탓인지 계곡물 소리가 유난히 시원스럽다. 수량이 많고 물도 깨끗해 일부 원정대들은 계곡에서 배낭을 벗고 흘러민 물을 씻어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에 참여한 원정대원들이 11번째 산행지인 해남 두륜산 도립공원 두륜봉을 향해 걷고 있다. 원정대원들 뒤로 멀리 남해안 다도해가 펼쳐져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TRUE PRODUCTS, REAL PEOPLE



아웃도어의 진심-밀레

사람보다 높은 산은 없다
 다가가기도 어렵고
 헤아리기도 힘들다
 그래도 올라야 할 산이라면
 진실하라
 진실하라

진심이 오른다
 아웃도어의 진심-밀레

WWW.MILLET.CO.KR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